

## 경상수지 2년 만에 월 100억 달러 돌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년 만에 월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5일 '한겨레'는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는 102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8년 9월(112억4천만 달러) 이후 24개월 만이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 서비스 수출입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흐름은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월 누적으로는 4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증가세(15억6천만 달러)로 전환했다. 8월까지 누적은 지난해보다 8억9천만 달러 적었다.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는 주로 수출 증가세에 힘입은 바 크다. 통관기준으로 9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늘어난 480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화공품, 승용차 부품 위주로 늘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늘어난 393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각각 17.6%, 9.3% 증가했지만, 원자재 수입은 12.4% 감소했다. 수출입이 전년



▲ 부산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컨테이너들. 사진=shutterstock

같은 달보다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수출 쪽의 큰 폭 증가세로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는 120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서비스 수지는 20억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 및 운송 수지 개선으로 지난해 같은 달(22억6천만 달러) 보다는 적자 규모가 적었다. 본원소득 수지 흑자 규모는 배당소득 수지 적자 전환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15억4천만 달러에서 6억1천만 달러로 줄었다. 이전소득 수지는 3억8천만달러 적자였다.

## 4050 자영업자 급감 ... 코로나19 여파

코로나19의 충격이 40대와 50대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7만 명 이상 줄고 '나홀로 자영업자'는 6만 명 넘게 늘었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하지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3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올해 8월 기준 66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16만1,000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6만3,000명으로 11.2%(17만2,000명)나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9만3,000명으로 1.6%(6만6,000명)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파가 불어닥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큰 40대와 50대에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1년 전과 비교해 50대에서 14만 명, 40대에서 10만4,000명이 각각 줄었다. 30대도 2만 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8만8,000명, 15~29세는 1만5,000명 각각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9만5,000명), 건설업(-4만1,000명), 제조업(-3만4,000명), 숙박·음식점업(-2만8,000명) 등에서 비임금근로자가 많이 줄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종사자가 10만1,000명 감소했고, 학원 강사 등 관리자·전문가도 3만6,000명 줄었다.

올해 8월 기준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만4,000명 늘었다. 그 가운데 육아, 가사, 재학·수강, 연로, 심신장애 등 이유도 없이 그냥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9만 명 늘어난 246만2,000명에 달했다.

## 수확철 맞은 농촌, 일손 부족 '울상'

지난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인력난에 허덕였던 농민들이 가을 수확철을 맞아 또다시 일손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향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말부터 국내 취업 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자격의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계절근로(C-4)'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일손 부족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농어가와 계약해 한시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게 된 E-9과 방문동거(F-1) 자격의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14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강원도 등 전국 10개 시·도의 46개 시·군이 올해 초 4802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코로나19로 동남아 국가 등에서 인력 송출을 꺼리면서 대부분 인력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농업인력지원봉사단을 운영하거나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순남 강원도 농정과 인력지원계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급적 내국인 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은 '외국인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책정된다. 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숙소도 제공한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은 보통 숙식비의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16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사진=shutterstock



**REDPOINT REALTY**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p><b>로스 알라미토스</b></p> <p>방4 화3 2,590sq 최고학군 위치 동네 인접 프리웨이, 상가, 부엌, 화장실 완전 리모델, 아늑하고 잘 정비된 정원 새집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795,000</b></p>	<p><b>애나하임 6유닛</b></p> <p>방2/1 화1 대지 9,148 sq 월 인컴 약 \$8,545</p> <p style="text-align: center;"><b>\$1,399,000</b></p>	<p><b>로스 알라미토스</b></p> <p>방4 화2.5, 2,700sq 최고 학군 화장실, 실내 업그레이드</p> <p style="text-align: center;"><b>\$1,049,000</b></p>	<p><b>터스틴 4유닛</b></p> <p>방3/2 화2/1 월인컴 \$7,198</p> <p style="text-align: center;"><b>\$1,425,000</b></p>	<p><b>로스 알라미토스</b></p> <p>방3 화2 좋은 학군 건평 1,623sq</p> <p style="text-align: center;"><b>\$936,000</b></p>
	<p><b>애나하임 단층집</b></p> <p>방3 화2.5 1,751sq 최고학군 좋은동네 넓은 뒷마당, 많은 과일나무, 교통편리 공원, 상가, 차고뒤에 방, 화장실 있음 인컴 창출 포텐셜</p> <p style="text-align: center;"><b>\$735,000</b></p>	<p><b>로스 알라미토스</b></p> <p>방4 화2 좋은 학군 건평 1,844sq</p> <p style="text-align: center;"><b>\$999,000</b></p>	<p><b>애나하임 4유닛</b></p> <p>방2/1 화1 월인컴 \$7,912 파킹5대</p> <p style="text-align: center;"><b>\$1,295,000</b></p>	<p><b>부에나 파 3유닛</b></p> <p>방2 화1 월인컴 약 \$4,400</p> <p style="text-align: center;"><b>\$850,000</b></p>	<p><b>부에나 파</b></p> <p>방5 화2.5, 2,250sq 교통 편함, 주위 좋음 Best Regards</p> <p style="text-align: center;"><b>\$875,000</b></p>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